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안 병 호 함평군수

천지한우·나비 쌀 명품브랜드로

안병호 함평군수는 "새해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비전 실현을 위한 민선 5기 함평 군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겉치레와 전시성 행정은 과감히 배격하고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향상 및 생활편의를 위한 내실있고 실용적인 군정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중심의 감동행정 구현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회생 ▲돈되는 농업 및 부자농촌 만들기 ▲ 복지함평, 웰빙 함평구현 ▲차별화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경제관광 육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 등의 중점시책을 확정했다.

녹색산단개발 고용창출

군은 우선 군정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군민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토론방, 군민 제안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범군민 정신문화 운동이자 실사구시형 잘살기 운동인 '함평천지 부흥운동'을 전개해 풍요와 행복의 대명사였던 '함평천지'의 옛 명성을 회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재편된 기업유치 조직을 적극 가동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내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상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특히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지역의 대표축제들은 반드시 군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경쟁력 강화 및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고품질 쌀생산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유통망 개발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함평의 대표 농특산물인 '함평천지 한우'와 '나비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을 통해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함평을 구현하고 건강·복지타운 건립 등 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축제 관광상품화

지역축제는 일회성보다는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실질적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경제축제를 지향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과 엑스포공원 등의 관광 인프라를 관광 벨트화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관광 로드(road)'로 육성해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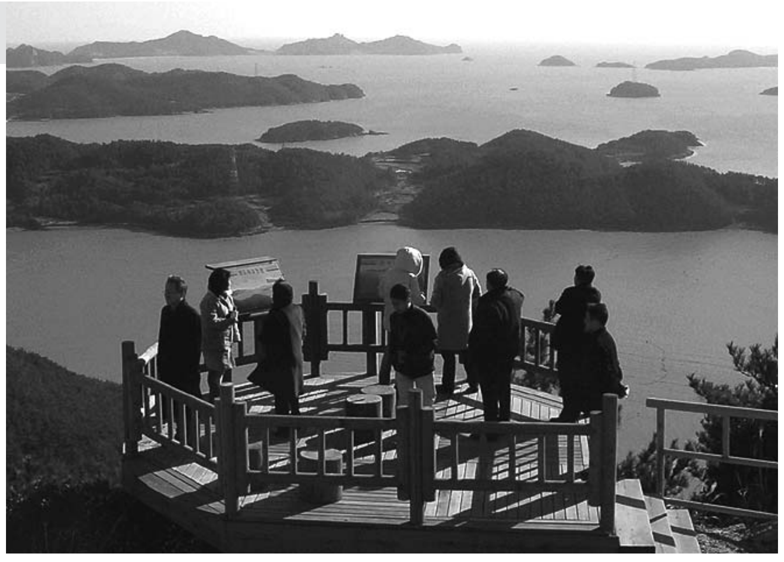
특히 군은 총 4094억원이 투입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통해 총 6개지구에서 생태관광지, 관광어촌, 주거단지, 복합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 함평'을 완성해 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안 군수는 "무엇보다 내실 있고 실용적인 군정의 발판 위에서 지역경제 회생과 군민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해상국립공원구역 2927만㎡ 지정 해제

진도 조도 30년 숙원 다도해 섬개발 '탄력'



진도군 조도면 일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진도군은 "환경부와 주민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과 농경지 등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 10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여수, 신안, 완도, 고흥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시·군 중 가장 많은 구역이 해제됐으며, 20가구미만 마을은 농경지 등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수혜 지역은 조도면, 임회면 등 2개면 (2927만㎡) 35개 마을·1967가구(2329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 지정이후 진도군 최대 현안사업이 30년 만에 해결됐다.

진도군은 632㎢(육상 63㎢·해상 569㎢)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제되는 육상 면적은 13㎢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은 앞으로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민들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땅값상승 및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한 대형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군은 동서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 지구에 항만정비,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조도면 도리산에 해안경관을 테마로 하는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전망대를 올해 설치해 '다도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서남부 해상 범죄 줄었다

목포해경 단속·예방 효과…전년비 28%⬇

전남 서남부 해상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

10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 발생한 서남부 해상 범죄는 모두 3773건으로 전년도 5250건에 비해 28% 줄었다.

이는 해양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에 '맞춤형 단속활동'으로 인권유린사범 29건에 48명을 붙잡아 전국 14개 해경에서 1위를 달성했고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결과 4231주를 적발해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는데 일조했다.

또 매년 봄철 발생하는 어구손상사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선박 충돌사건과 어구 손상사건이 50%와 30%씩 각각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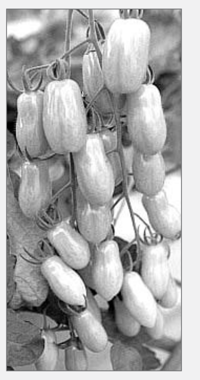
어구 손상 감소로 57억원의 재산피해 예방 효과도 가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 한해도 민생침해 사범 등 해상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 위반사범과 국책사업 및 국고 보조금 비리사범 등 검거에 주력하는 등 해상 치안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식탁에 '컬러푸드' 바람

해남 컬러 토마토 출시…대도시 '인기'



화려한 색깔과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컬러토마토가 해남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3.2ha 면적에서 2400t의 컬러 토마토를 생산할 예정이다. 대추 모양의 컬러 토마토는 붉은색과 노란색을 띠어 식욕을 돋우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육질이 부드럽고 평균 4~7도인 일반 토마토의 비해 10~11브릭스로 당도가 매우 높아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색깔별로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컬러푸드' 문화에 따라 항암(붉은색), 항산 화 (노란색) 등 기능별 컬러 토마토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 한 수 익산시장

LED산업 중심도시 본격 육성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뛰겠습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본격적인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올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5대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한편 그동안 LH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해 향후 100년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KTX 역사 8월 완공

지난해 착공된 KTX 선상 역사 건립은 오는 2013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익산역 국가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착수해 KTX 속도혁명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해 나갈 복안이다.

저탄소 녹색산업인 LED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전국 최대 규모의 LED 식품공장을 건립하고 LED농생명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LED산업의 중심도시로 본격 육성한다.

이 시장은 "올해 완공되는 일반 산업단지와 종합 의료과학산업단지에 국내외 우량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돼 3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2년까지 오산면 일원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복지 부문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을 초·중학생 전체와 농촌지역 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하고 글로벌 해외 연수지원 등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영등 도서관은 여성친화, 마동 도서관은 보석, 모현 도서관은 식품클러스터, 부송 도서관은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을 운영해 '책 읽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초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익산 역사유적지구는 체계적인 역사유적정비는 물론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2014년까지 세계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농산물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출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전국단위 마케팅을 펼침과 동시에 주말농장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영유아 보육비·출산여성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며 농지 부부 공동소유제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착공

특히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왕궁축산단지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완전히 철거한 후 친환경마을로 탈바꿈하며, 올해 상반기중에 금마저수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착공한다.

이 밖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협력 네트워크인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과 다문화가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취업 원스톱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친화적 감성도시'를 적극 추진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 친환경 농업에 72억 투입

市, FTA 대응 맞춤형 특성화 전략 추진

남원시는 올해 FTA 대응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친다.

남원시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와 남원추어탕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 원예 주산단지 조성 ▲산채류·버섯류 생산·유통체계 구축 ▲경·축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대 ▲조경수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분야에 지역연고 맞춤형 농업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2100ha에 27억원을 들여 조사료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5과정) 1만3195명 ▲지역농업 핵심리더 교육(5개 단체) 6525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 각종 농업정책을 개발해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사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밑거름으로 액비를 사용할 경우 ha당 26만원 정도가 줄어 ▲영농비 절감 ▲환경 오염차단 ▲지속가능한 농업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 무인 민원발급 확대

정읍시는 새해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읍시는 지난 5일부터 시청 종합민원과, 신태인 읍사무소, 내장상동 주민센터, 수성동 우체국, 수성동 새마을금고, 법원 등 6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4종류의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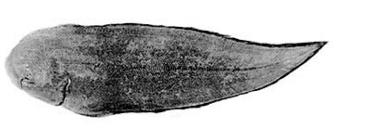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각각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시는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6종, 2012년에는 제적증명서 등 4종의 교육민원을 추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별미어종 '박대' 상품화

市, 가공공장 6월 준공…年 50t 가공품 생산



군산시가 지역 별미 어종인 '박대(서치)'를 전국 상품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산시는 성산면 여방리에 신축중인 군산 참박대 가공공장이 오는 6월 문을 열면 전국적으로 박대 판매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상 2층 규모(연면적 747㎡)로 건설되는 박대 수산가공시설은 연간 50여t의 박대를 가공품으로 만들어 연간 5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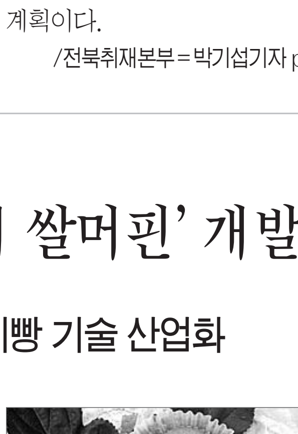
시는 올해 참박대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수산특산품 품질 인증 등을 거쳐 전국망을 구축하고, 고급 마케팅을 통해 '군산 박대'의 상품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광객에 대한 판매는 물론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에도 입점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앞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박대는 경골어류(硬骨魚類) 가자미목 참서대과의 바닷물고기로, 군산지역에서는 고소한 맛의 박대조림과 시원한 맛을 내는 박대탕이 겨울철 별미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혈압 강하 '오디 쌀머핀' 개발

道농기원, 제과·제빵 기술 산업화



쌀소비 확대를 위한 쌀 가공식품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첨가한 기능성 쌀머핀이 개발됐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은 최근 오디와 쌀가루를 이용한 '오디 쌀머핀' 제조방법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쌀가루는 80% 첨가했을 때 관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오디열매는 머핀 제조 후에도 혈압강하 효과가 92%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쌀가루 및 오디뽕을 이용해 다양한 제과, 제빵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산업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틈새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디 뽕나무는 고창과 부안 등지에서 1000ha가 재배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